

**2016** thebell

# Venture Capital Forum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



1.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오는 6월 22일(수)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6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을 개최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처특별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제정 당시 법의 효력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지만 제정 후 10년째이던 2007년 법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두 번째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벤처업계는 법의 개편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 벤처업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특별법의 존치여부나 단순 재연장이 아닌 벤처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번 포럼은 벤처지원정책의 방향이 보다 장기적이고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6. 이에 아래와 같이 귀사 임직원을 초청하오니 부디 귀한 시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 행사 개요

- 행사명: 2016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 주제: 벤처특별법 단일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주최/주관: 머니투데이 더벨
- 후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 ■ 협조요청사항 귀사 임직원 참석

- 참가혜택: 자료집 및 중식 제공
- 참가비용: 무료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thebell.co.kr](http://www.thebell.co.kr)) > 2016 thebell Venture Capital Forum 클릭 > Introduction > 참가신청  
  - v 신청여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자동 등록)
  - v 120명 선착순 마감

## ■ 기획 취지

-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제정 당시 법의 효력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고, 10년째이던 2007년 법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했습니다. 2017년에 두 번째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벤처업계는 법의 개편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벤처특별법의 개편과 관련해 복잡하고 다기화 돼 있는 현행 벤처관련법의 정합성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벤처특별법의 개편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벤처정책에 대한 공과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이번 포럼은 미래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 ■ 프로그램

\*사회 :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시간	내용	발표자
09:30~10:00	접수 및 Tea time	
10:00~10:10	개회사	성화용 머니투데이 더벨 대표
	인사말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10:10~10:40	주제발표: 한국 벤처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10:40~11:50	패널토론	김윤권 LB인베스트먼트 전무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이영민 서울대학교 교수 배동근 KDB산업은행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11:50~13:00	중식	

\* 상기 일정 및 발표 주제는 발표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